

## 한국, 美國에 防産市場 開放 公約

한국의 국방 제2차관보 李昌九 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韓·美間의 방산물자 교역 및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 防産物資 市場을 개방하고, 오프셋트 정책 수정 및 知的 所有權 보호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 방위준비협회가 공동주최한 '88 한·미 방산회의에서 李昌九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韓·美 양측의 政府 人事 및 업체 대표들에게 『한국은 미국업체들이 한국업체들과의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 관리에 따르면 李昌九소장의 이번 연설은 방위산업 개혁에 관한 한국 정부의 최초의 언급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 防省의 국제계획 및 기술담당 부차관실 Bruce Gillette 극동담당보좌관은 『한국이 공식석상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Everett Greinke 美 국방성 국제계획 및 기술담당부차관은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채택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 한국측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MoU는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韓·美 年例安保

協議會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李昌九 소장은 50%의 오프셋트, 그 중에서도 20%는 직접 오프셋트를 요구하는 한국의 오프셋트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오프셋트의 量보다는 質에 중점을 둘 것임을 약속하였다.

오프셋트는 大型 購買時 이면계약을 부속시킴으로써 구매자에게 보상의 기회를 주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직접오프셋트는 구매물품과 직접관련이 있으며 공동생산이나 면허생산, 기술이전등의 형태를 취한다. 간접오프셋트는 구매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구매국 경제에 대한 투자나 상품구매등의 형태를 취한다.

이창구 소장은 『우리는 앞으로 오프셋트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계속 줄여갈 것이며, 업체 對 업체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장려하고 간접오프셋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창구 소장은 최근 한국의 오프셋트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업계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의혹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成長途上에 있는 국가이다. 오프셋트와 관련하여 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이창구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한국은 수요가 증대된 고도 정밀무기체계를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 한다.
- 한국은 韓·美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1996년경에는 국방예산의 5%를 연구 개

이 글은 '88 韓·美 防産會議에 대해 美 週刊軍事專門誌 〈DEFENSE NEWS〉가 報導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국정부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양국의 공동생산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공동생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 155미리 자주포와 F-5E 전투기 등이 그 예이다.

## 경기침체가 韓·美間 마찰요인으로 대두

한국 防産業界의 경기변동이 韓·美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白永勳 박사는 언급하였다. 지난 월요일 韓·美 방산회의 연설에서 白博士는 한국 방산업계가 지난 16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한국은 1972~76년 기간중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 방위산업계의 성장률이 연간 18%에 이르렀으며, 1977~81년까지의 4차 기간중에는 13%, 1982~86년까지의 5차기간중에는 8.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국내 需要는 대부분 충족되었다. 지난 5년간 한국 방산업체 가동율은 39.9%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의 후원에 힘입은 바 크므로 국방조달의 감소는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白博士는,

『1980년대 초부터 국방조달의 물량은 감소하였으며, 이제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압박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수출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미국 防産市場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미국 정부 관리중에서는 동맹국

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국의 태도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한국 방위산업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하여 면허생산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제3국 판매에 대해 미국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제3국 판매 승인에 대한 미국의 거부태도에 한국측의 불평을 야기시켰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원천기술을 사용한 품목의 판매에 대한 로열티 부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내에서 생산중단된 품목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 무기개발에 투자한 것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인들은 비공식석상에서 한국과의 협력사업이 탐탁치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가나 관리들이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취하는 냉정함과 확고부동함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측 견해는 한국의 성장과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굳건하고 활성화된 방위산업이 필요하게 되고, 오프셋트나 제3국 판매가 이런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韓·美 연구개발협정 조인

한국과 미국은 방산물자 교역과 관련하여 오프셋 및 무기수출 등 깊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5개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에 합의하였다고 미국 정부 관리가 지난 월요일 밝혔다. 5개분야란 地對空 미사일, CI, 연안 방어 시스템 및 近海 對潛戰 장비, Hard structure munitions, 無人航空機등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 방위준비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차 韓·美 방산회의에서 언급되었다. 이 협력사업들은 방산기술 및 산업협력(DTIC) MoU의 일부로서 6월에 한국의 吳滋福 국방장관과 미국의 Carlucci 국방장관에 의해 공동서명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MoU 협정에 따라 기술협력위원회와 2개의 小委員會를 설치할 것이다. 이 소위원회중 하나는 연구개발을 감독하고, 하나는 생산 및 軍需支援을 감독한다. 연구개발에서 정비, 유지에 이르는 획득주기가 이 협정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 MoU에서는 양측이 資源을 투하할 의무가 없으며 개별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MoU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美 국방성 국제계획 및 기술담당 부차관실 Bruce Gillette 극동담당 보좌관은 이 회의의 연구 개발 및 상호구매 分科會議에서, 「이 MoU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필요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진지한 의지를 정부와 업체에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제 우리는 협력 사업을 발전하고 자금의 조성등 중요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관리들은 이 MoU를 進一步한 조치로 환영하지만 일부 한국측 관리 및 기업가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상호

물자를 구입하기로 하는 MoU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미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 특히 한국의 조달체계, 오프셋, 지적소유권 보호, 제3국 판매 등에서의 과도한 보호주의가 현시점에서 MoU체결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프셋이란 대형구매시 일정한 형태의 산업 또는 상업적 보상이 수반되는 거래방식이다. 직접오프셋트는 구매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며, 간접오프셋트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국은 방산관련 물자를 구입할때 50%의 오프셋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20%는 직접오프셋트로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NATO 회원국이나 이집트, 이스라엘등과 비교할때 말 그대로 2급 국가로 구분되어 있음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국산업기술연구원장 白永勳 박사는 말하였다. 그는 또한 「Buy American」규정과 기타 규정들이 對美 販賣時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미국의 중요한 차별정책이다. 본인은 조심스런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거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입법조치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 美 업계, FX支援-報償 요구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Herbert Rogers 사장은 지난 월요일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利得도 共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Rogers 사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 방위준비협회가 주관한 제3차 韓·美 방산회

의에서 연설을 하였다. Rogers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FX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美側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FX 사업을 국가적인 중요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동생산과 기술이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업계에서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결국에는 미국 업체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社는 한국과 주요 교역상대일뿐 아니라 한국의 FX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Rogers의 견해는 FX 사업이나 일반적인 韓·美업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X사업으로 한국은 고도 항공기술의 생산국이 될 것이므로 다른 어떤 방위산업보다 큰 韓·美 업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Rogers는, 한국측은 이 계획이 정부對 정부보다는 상업판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미국 정부는 이미 F-16과 F-18을 三星航空에 의하여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兩國 업계가 각자의 정부 당국과 함께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이것은 조심스럽게 계획된 협력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막연히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논의보다는 모든 細部事項이 事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여기에 고도 技術의 移轉에 대한 制約이 있으며, 고도기술의 이전에 따른 결과뿐 아니라 이런 제약도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로저스는 양국이 이 계획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측의 경제적인 이익은 아마 長期적인 것이 될 것이며, 주요 항공 생산국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이익은 中·短期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쌍방간에 공통되는 기반이 모색되어야 하고, 시장의 규모가 경제적으로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Defense News〉 1988. 5. 16.

## 一笑一少 一怒一老

### 욕심장이 남편

어떤 사내가 이제 막 새로산 여러 골프 도구를 친구에게 내보이면서 말하였다.

『나와 아내는 너무 똥똥해져서 지난 달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았지.

그랬더니 두사람 모두 운동부족이라고 그러더군.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툼툼히 정원에서 골프를 하기 위해 이걸 샀지.』

『좋은 생각이군, 그래.

부인께는 무엇을 사주었나?』

라고 친구가 궁금스레 물었다.

『응. 잔디깎는 기계를 새로 사주었다네.』